

기획특집

변화하는 가족 돌봄의 양상과 지원 방안

- **경계 위의 돌봄, 경계 밖의 돌봄**
: 이주민가족 자녀 돌봄의 현실과 과제
최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부모 돌봄의 문제와 아동 돌봄정책 과제**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신적 장애인 가족의 돌봄 경험과 지원 방안**
정가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조부모 돌봄의 문제와 아동 돌봄정책 과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000년대 초·중반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진단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 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발전, 초등돌봄 서비스 확충 등 공적 아동 돌봄 인프라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 돌봄은 여전히 가족 내부의 비공식 돌봄자원, 특히 조부모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운데 약 절반이 조부모이며(김은설 외, 2021: 156), 오후 4시부터 부모의 퇴근 전 시간대에는 할머니가 미취학 아동의 가장 중요한 돌봄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김은지 외, 2022: 415).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비롯하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손주돌봄 수당,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 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¹⁾,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²⁾도 있어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조부모를 공식적인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른바 ‘황혼육아 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조부모 돌봄의 제도화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부모 돌봄수당에는 그동안 가족 내부에서 무급

1) 베이비뉴스(2025.8.6.). 조부모 돌봄수당.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700> (최종 검색일 2025.10.19.)

2) 헤드라인 제주(2025.9.15.). 내년부터 손자 돌봄 조부모에 수당 지급...통합돌봄 확대.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444> (최종 검색일 2025.10.19.)

으로 수행되어 온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 나아가 ‘어차피’ 돌봄 수밖에 없는 조부모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되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며, 정부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 또한 높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부모 돌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누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는 노년기 손자녀 돌봄 경험은 어떠한 것인지, 돌봄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부모 돌봄수당이 여성에게 집중된 자녀양육 책임과 부담이라는 성불평등 구조와 어떻게 맞아와 있고, 다시 그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20여 년 공적 돌봄 서비스와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발전되어 왔음에도 왜 여전히 우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첫째, 조부모 돌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 그간의 아동돌봄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도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기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조부모 돌봄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아동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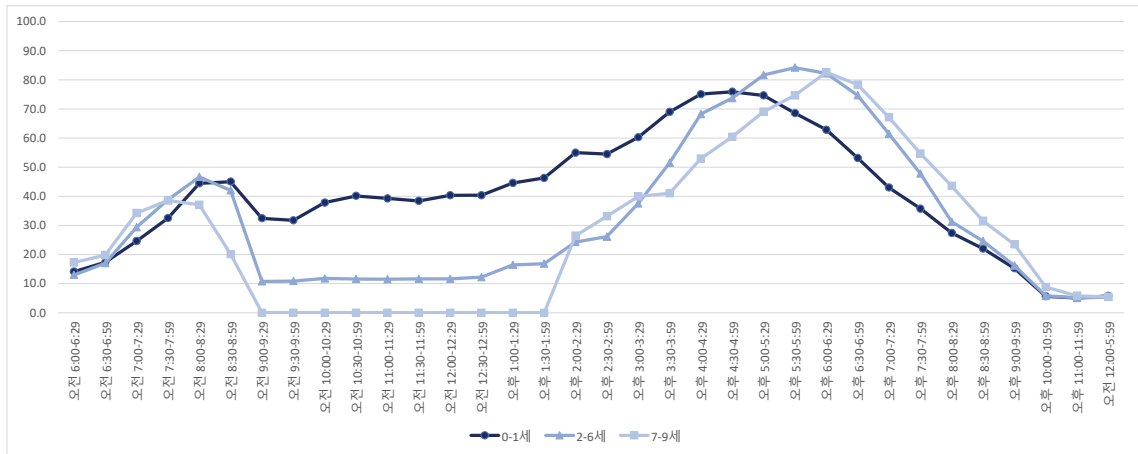
2. 노인의 손자녀 돌봄 현황과 문제³⁾

가. 손자녀 돌봄 현황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상당한 시간과 강도로 제공되고 있다. 조부모는 평일 기준 주당 평균 4.6일 손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6.04시간,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7.23시간에 이른다. 특히 손자녀가 어릴수록 조부모의 돌봄시간은 길어서 0-1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7.34시간에 이른다(0-1세 7.34시간, 2-6세 6.00시간, 7-9세 5.32시간). 평일 시간대별 조부모 돌봄 비중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오전 6시부터 시작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0-1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오전 시간대에도 조부모 돌봄 비율이 높다. 영아의 낮은 기관 이용률로 인해 조부모가 사실상 주된 돌봄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세, 7-9세는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 오후 6시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후 감소해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모든 연령대에서 조부모 돌봄 비율이 50% 미만이 되기 시작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 등의 하원 시간 이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 전까지 조부모 돌봄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시간대별 분포는 조부모 돌봄이 기관 운영 시간과 부모 퇴근시간 사이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이 장은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요약정리함. 이 조사의 모집단은 “지난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74세 조부모”이며, 표본 수는 1,063명(여성 660명, 남성 403명)임. 조사는 2025.7.28.-2025.8.18. 사이에 전문조사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음.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의 특성은 마경화·김소영·김은자문희영(2025).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81-92를 참조할 것.

(단위: %)



[그림 1] 손자녀 연령대별 평일 돌봄시간 분포

자녀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조부모는 51.9% (정기적 34.6%, 비정기적 17.3%)로 절반을 약간 넘으며 48.0%는 아무런 경제적 보상 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상당한 시간과 노동강도를 수반하는 조부모 돌봄의 절반 가량이 가족관계에 기초한 무급 돌봄노동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가를 받는 비율이 높고(여성 54.2%, 남성 47.2%) 받는 금액도 더 많다(여성 월평균 80.6만원, 남성 68.5만원). 조부(祖父) 보다 조모(祖母)가 더 상시적이고 집약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 조부모 중 45.1%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가구의 경제적 생계유지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남성보다(여성 48.5%, 남성 37.1%) 월등히 높고, 특히 65세 이상 여성(65-69세 58.8%, 70-74세 60.6%)과 저소득층 여성(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2.0%, 200-300만 원 미만 64.3%)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나. 성별화된 손자녀 돌봄 부담

돌봄시간의 총량만을 보면 조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평일 기준 주당 돌봄시간은 여성 27.39시간, 남성 26.88시간으로 여성이 약간 길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돌봄 활동의 내용을 보면 조모에게 대부분의 돌봄 노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개 돌봄 항목 중 손자녀의 할머니가 주돌봄자인 항목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손자녀의 모(母)가 5개, 손자녀의 할아버지가 1개였다. 할머니는 식사시간에 밥(우유) 밥차려주기/먹이기, 간식 챙기기, 손자녀 식사준비, 울거나 보챌 때 달래며 안정시키기, 정서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해 곁에 있어주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등하원 동행, 실내에서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동화책 읽어주기(실내놀이), 목욕,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등에서 주돌봄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손자녀의 할아버지는 1개 항목(놀이터, 공원 등 밖에 나가 같이 놀아주기(실외 놀이))에서만 주돌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에는 손자녀의 할아버지도 30% 이상 참여했지만, 손자녀의 할아버지가 주돌봄자 1순위인 활동은 ‘실외놀이’가 유일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손자녀의 할머니가 1순위라는 응답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그밖에 20% 이상이 손자녀의

할아버지가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활동은 ‘등하원’, ‘실내놀이’ 정도였다. 손자녀의 할아버지가 돌봄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신체적 밀착도가 높고 반복적인 일상 돌봄은 조모가 수행하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돌봄활동별 주돌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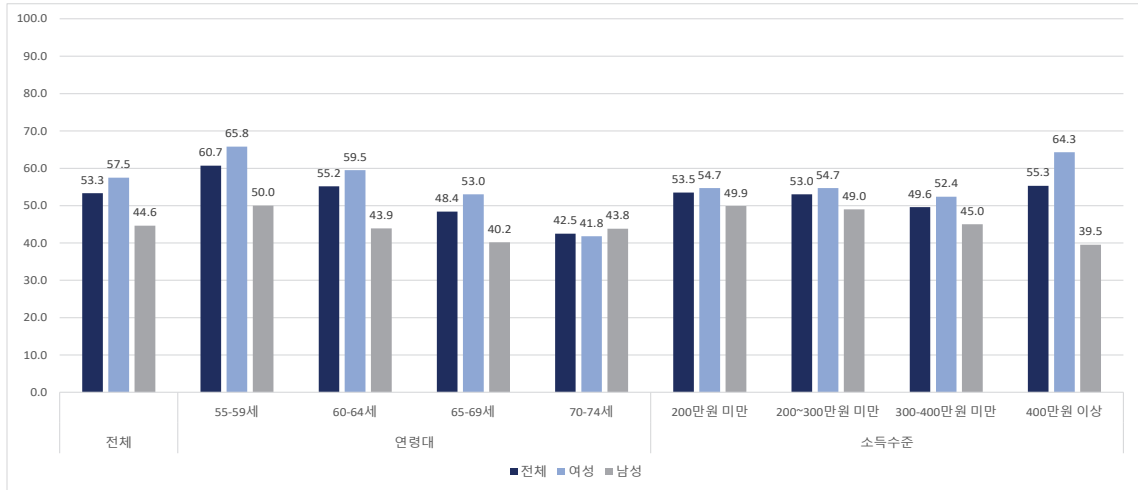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조모	조부	모	부	기타 가족	외부 인력	혼자/스스로
밥차리기/먹이기	55.6	8.5	23.0	5.9	3.9	2.3	0.9
간식 챙기기	53.7	14.8	18.5	5.5	3.6	3.0	0.9
식사 준비	53.5	3.4	30.7	4.8	4.4	2.6	0.5
안정 시키기	46.0	9.8	32.4	5.5	3.8	1.3	1.3
손자녀 부모 식사준비	40.4	3.0	44.5	6.0	3.5	2.5	-
곁에 있어주기	40.3	12.5	33.6	7.3	4.4	1.2	0.6
손자녀 옷 빨래	39.6	5.1	41.3	6.4	4.0	3.1	0.6
등하원	39.1	25.2	17.8	8.3	4.4	2.9	2.2
실내 놀이	35.6	20.8	22.8	10.9	4.2	2.8	2.9
손자녀 부모 가사 도움	34.5	6.1	40.4	11.5	4.1	3.4	-
목욕	33.2	10.0	31.2	16.3	4.1	2.2	2.9
아플 때 병원 동행	32.4	18.9	31.9	11.4	3.7	1.4	0.4
잠 재우기	30.0	6.6	43.6	10.9	4.6	1.5	2.7
실외 놀이	29.1	30.7	14.4	18.0	4.2	1.8	1.8
학습지도	24.1	15.0	40.4	12.9	3.9	1.8	1.9

많은 조부모들에게 손자녀 돌봄은 자발적 선택이 라기보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되는 부담이다.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 돌보고 있는 조부모는 절반 이상(53.3%)이었다. 비자발적 돌봄은 여성이 남성보다(여성 57.5%, 남성 44.6%)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양상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자발적 돌봄 비율이 높지만, 여성 노인은 특히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55-59세 65.8%, 60-64세 59.5%, 65-69세 53.0%, 70-74세 41.8%). 사회활동이 활

발한 시기의 여성일수록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손자녀 돌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여성과 남성의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남성 노인은 저소득층에서 비자발적 돌봄 비율이 높은 반면(200만 원 미만 49.9%, 200-300만 원 미만 49.0%, 300-400만 원 미만 45.0%, 400만 원 이상 39.5%), 여성 노인은 고소득층에서 높다(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4.7%, 200-300만 원 미만 54.7%, 300-400만 원 미만 52.4%, 400만 원 이상 64.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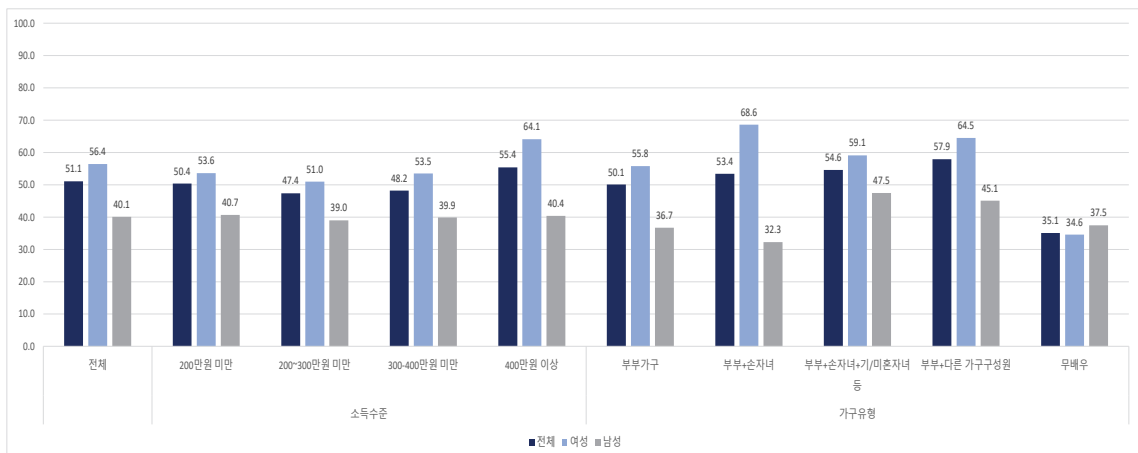


[그림 2] 조부모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비자발적 손자녀 돌봄

여성 노인의 손자녀 돌봄은 손자녀 돌봄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원에 대한 돌봄과 중첩되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 등 다른 가족원까지 챙기면서 손자녀를 돌봐야 해서 힘들다”고 응답한 노인이 51.1%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러한 다중돌봄 부담 역시 여성 노인(56.4%)이 남성 노

인(40.1%)보다 현저히 높았다. 남성 노인은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성 노인은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다중돌봄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200만 원 미만 53.6%, 200~300만 원 미만 51.0%, 300~400만 원 미만 53.5%, 400만 원 이상 64.1%).

(단위: %)



[그림 3]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다중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부부 이외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동거하는 가구에서 여성 노인의 다중돌봄 부담은 특히 두드러졌다. 부부가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68.6%), 다른 가구구성원과 동거하는 가구(64.5%), 손자녀와 기/미혼 자녀 등과 동거하는 가구(59.1%)의 여성 노인 중 약 60%가 다중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손자녀 돌봄이 여성 노인에게 단독으로 부과되는 과업이 아니라, 이미 수행 중이던 배우자·가족 돌봄이라는 기존 돌봄노동 위에 추가로 얹히면서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은 돌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험한다.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4.8%에 달했다. 또한 공연·전시 관람이나 여행 등 원하는 문화·여가활동을 하지 못한 경험이라는 응답도 59.8%로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개

인적인 시간 활용과 여가·문화생활을 제약하여 노년기 삶의 자율성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적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인도 적지 않았다.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2.4%였으며, 손자녀 부모와 돌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도 47.6%에 달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이 난 경험이 있는 노인은 45.4%였고,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2.8%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도 자신만의 삶을 찾지 못해 우울감을 느낀다는 응답 역시 39.3%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돌봄이 단순한 육체적 피로나 시간 부족에 그치지 않고, 여가와 사회참여 기회의 제약, 건강관리의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나아가 노년기 삶의 자율성과 정체성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당수 노인이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건강권과 자기돌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 조부모 성별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사례수		1,063	660	403
신체적 어려움	손자녀 돌보기가 체력적으로 힘들다	72.1	75.5	65.0
	피곤해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58.5	59.9	55.8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난 적이 있다	45.4	48.4	39.2
	손자녀를 돌보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간 적이 있다	42.8	44.9	38.4
정신적 어려움	손자녀를 돌보는 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52.4	54.8	47.5
	손자녀를 돌보느라 노년에도 나만의 삶을 찾지 못해 우울감을 느낀다	39.3	43.0	31.6
	손자녀 부모와 돌봄 방식이 달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47.6	49.6	43.6
자기돌봄 활동 제약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54.4	55.9	51.3
	공연이나 전시, 여행 등 문화 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59.8	60.3	58.9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64.8	65.0	64.3

손자녀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신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부담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먼저 신체적 어려움을 살펴보면, '손자녀 돌보기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응답한 여성은 75.5%로 남성(65.0%)보다 10.5%p 높았다. '피곤해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여성 59.9%, 남성 55.8%),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난 적이 있다'(48.4%, 39.2%),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간 적이 있다'(44.9%, 38.4%)는 항목에서도 여성 노인의 어려움이 일관되게 더 크게 나타나 손자녀 돌봄은 여성 노인의 신체적 소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적 어려움에서도 여성 노인의 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노년에도 나만의 삶을 찾지 못해 우울감을 느낀다'는 항목은 여성 43.0%, 남성 31.6%로 11.4%p의 차이를 보여 전체 항목 중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손자녀를 돌보는 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여성 54.8%, 남성 47.5%), '손자녀 부모와 돌봄 방식이 달라 스트레스를 받는다'(여성 49.6%, 남성 43.6%)는 항목 역시 여성 노인이 더 높았다. 이는 여성 노인이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면서 체력의 소모와 함께 자기 삶의 상실감과 정서적 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돌봄활동 제약 경험 역시 여성 노인의 어려움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았으나, 이 영역은 남성의 어려움도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여성 55.9%, 남성 51.3%), '문화 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여성 60.3%, 남성 58.9%),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여성 65.0%, 남성 64.3%)는 항목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모두 남성보다 높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비해 남녀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자기돌봄활동 제약은 성별과 무관하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전반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녀 조부모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돌봄 부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는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문화활동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과 같은 자기돌봄활동 제약은 남녀 모두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 반면, 체력적 소진, 신체적 건강 악화, 의료이용의 제약, 정서적 소진과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성 노인에게 더욱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돌봄을 단순히 '유휴노동력'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손자녀 돌봄은 신체적으로 노쇠해지는 시기에 있는 노인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건강관리의 기회를 제약하며, 경우에 따라 노년기 삶의 자율성 약화라는 비용을 초래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변화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자기돌봄 및 사회활동, 가족관계 등의 네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조부모 돌봄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양면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 영향은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3>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신체적 건강	신체 질환이나 통증	전체	1,063	6.2	46.0	47.8
		여성	660	5.0	43.1	51.9
		남성	403	8.7	52.0	39.3
	육체적 피로감	전체	1,063	3.9	22.4	73.7
		여성	660	3.6	21.4	75.0
		남성	403	4.6	24.4	71.0
정신적 건강	정신적 부담· 스트레스	전체	1,063	9.7	29.9	60.4
		여성	660	8.6	29.4	62.0
		남성	403	12.1	30.8	57.1
	정서적 외로움이나 고립감	전체	1,063	39.3	35.5	25.2
		여성	660	37.8	35.3	26.9
		남성	403	42.4	35.8	21.8
자기돌봄 및 사회활동	개인적 시간이나 여가활동	전체	1,063	62.3	20.4	17.3
		여성	660	59.6	21.7	18.8
		남성	403	68.1	17.6	14.3
	운동· 건강관리 활동	전체	1,063	50.2	34.8	15.0
		여성	660	49.1	34.4	16.5
		남성	403	52.5	35.6	11.9
	친구, 이웃과의 교류, 각종 모임 참여	전체	1,063	59.2	26.3	14.5
		여성	660	58.0	25.8	16.3
		남성	403	61.9	27.3	10.7
구분			사례수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가족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전체	1,063	2.7	15.4	81.9
		여성	660	2.2	16.2	81.6
		남성	403	3.7	13.9	82.4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	전체	1,063	4.1	27.0	68.8
		여성	660	4.3	29.2	66.5
		남성	403	3.8	22.7	73.6
	배우자와의 관계	전체	943	6.5	49.5	44.0
		여성	567	7.0	51.3	41.6
		남성	376	5.6	46.0	48.4

먼저 신체적 건강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변화가 뚜렷하다. 손자녀를 돌본 이후 신체 질환이나 통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였으며, 여

성은 51.9%로 남성(39.3%)보다 12.6%p 높았다. 육체적 피로감은 73.7%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75.0%)이 남성(71.0%)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손자녀 돌봄이 노년기의 신체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적 건강에서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0.4%였으며, 여성(62.0%)이 남성(57.1%)보다 높았다. 반면 정서적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9.3%로 증가하였다는 응답(25.2%)보다 높았다. 특히 외로움 감소는 남성(42.4%)이 여성(37.8%)보다 더 높았으며, 반대로 외로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여성(26.9%)이 남성(21.8%)보다 많았다. 손자녀 돌봄은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만 다른 한편,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 경험은 여성이, 정서적 고립이나 외로움 감소 경험은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차이가 있다. 손자녀 돌봄이 가족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남성 노인에게는 정서적 교류의 기회로 작용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미 돌봄을 매개로 이미 가족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던 여성 노인에게는 그러한 정서적 이점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돌봄 및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부정적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개인적 시간과 여가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2.3%, 친구·이웃과의 교류 및 각종 모임 참여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59.2%, 운동과 건강관리 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50.2%에 달했다. 이는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자기돌봄 및 사

회활동을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영역과 달리 이 영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감소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적 시간과 여가 활동 감소는 남성이 68.1%로 여성(59.6%)보다 높았고, 친구·이웃과의 교류 감소 역시 남성(61.9%)이 여성(58.0%)보다 높았다. 남성 노인이 손자녀 돌봄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회활동과 여가를 포기하는 경험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여성은 이미 가사와 가족 돌봄을 중심으로 생활해 온 경우가 많아 손자녀 돌봄이 기존 생활양식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여성이 자기돌봄 활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녀의 기존 생활방식이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성은 손자녀 돌봄 이전부터 이미 개인 시간·여가·사회적 교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자기돌봄활동 감소의 여지가 작았던 반면, 남성 노인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개인 시간·사회활동이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가족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81.9%로 가장 높았으며,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도 68.8%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남성(73.6%)이 여성(66.5%)보다 높았으며,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남성(48.4%)이 여성(41.6%)보다 높았다. 이는 손자녀 돌봄을 통해 가족 내 상호작용과 관계가 증진되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관계적 보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성 노인

에게 손자녀 돌봄이 가족 내 역할 확대와 이로 인한 인정의 기회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에 비해 많은 남성들은 생애과정에서 자녀 돌봄에 덜 참여하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적으며, 그 결과 노년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향이 있다. 손자녀 돌봄은 남성 노인에게 가족관계를 재구성하고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성 노인은 손자녀 돌봄 이전에도 남성 노인에 비해 자녀와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손자녀 돌봄은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로 인식되기 보다 일상화된 가사·돌봄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남성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손자녀 돌봄은 노년기 삶에 대해 비용과 보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서적 고립이나 외로움 완화, 손자녀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자기돌봄과 사회활동의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비용과 보상이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신적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외로움 감소와 가족관계 개선 등 관계적 보상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손자녀 돌봄이 기존의 성별화된 생애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성은 손자녀 돌봄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연장으로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교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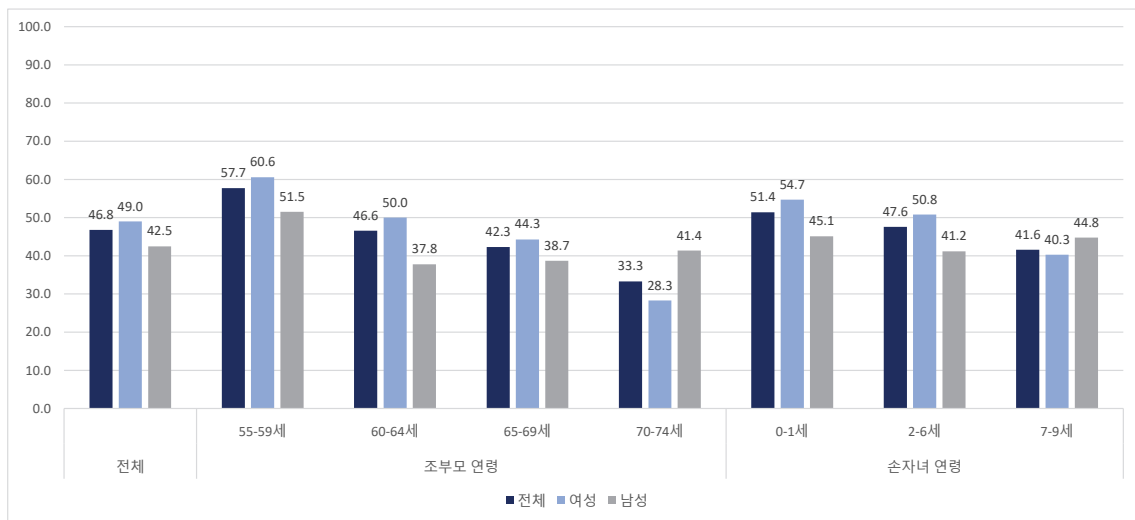
는 새로운 삶의 계기로 경험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손자녀 돌봄 지속 의향

손자녀 돌봄이 손자녀를 비롯한 가족관계와 노년기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자기돌봄 활동 제약으로 인해 적지 않은 조부모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46.8%가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49.0%)이 남성(42.5%)보다, 조부모 연령이 낮을수록(55-59세 57.7%, 60-64세 46.6%, 65-69세 42.3%, 70-74세 33.3%), 손자녀가 어릴수록(0-1세 51.4%, 2-6세 47.6%, 7-9세 41.6%)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 노인의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55-59세 여성 중 60.6%, 0-1세 영아를 돌보는 여성 노인 중 54.7%가 손자녀 돌봄 중단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여성 노인이 영아 등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의 물리적·정서적 강도가 높아지면서 돌봄 중단에 대한 고민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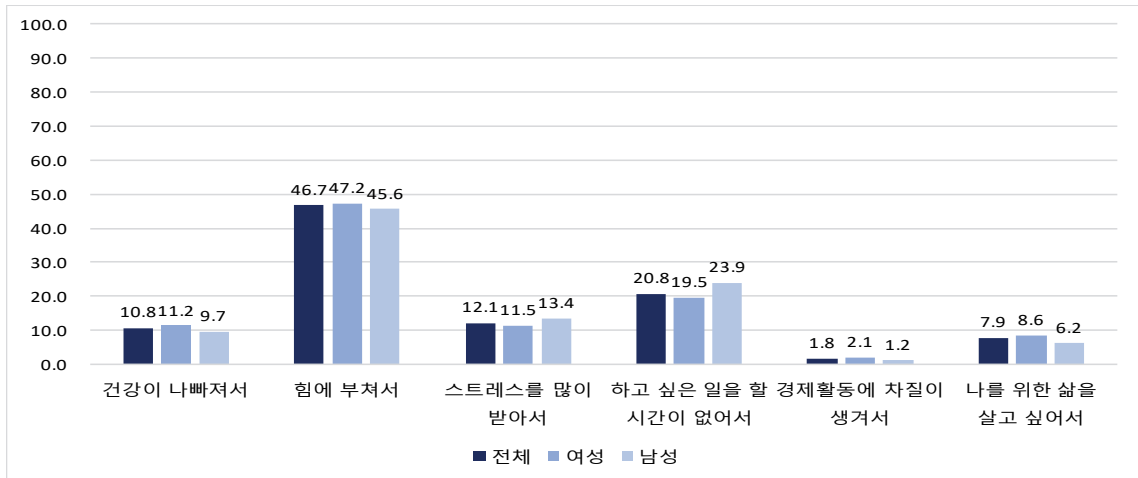


[그림 4] 조부모 연령별, 손자녀 연령별 성별 돌봄 중단 생각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의 배경에는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돌봄 중단을 고민해 본 노인 중 46.7%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에 부쳐서’를 꼽았으며, ‘손자녀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12.1%), ‘건강이 나빠

져서’(10.8%)가 뒤를 이었다. 세 응답을 합치면 70%에 육박하는 조부모가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돌봄 중단 고민의 이유로 들고 있어, 신체 질환·통증과 육체적 피로감 증가가 실제로 조부모의 돌봄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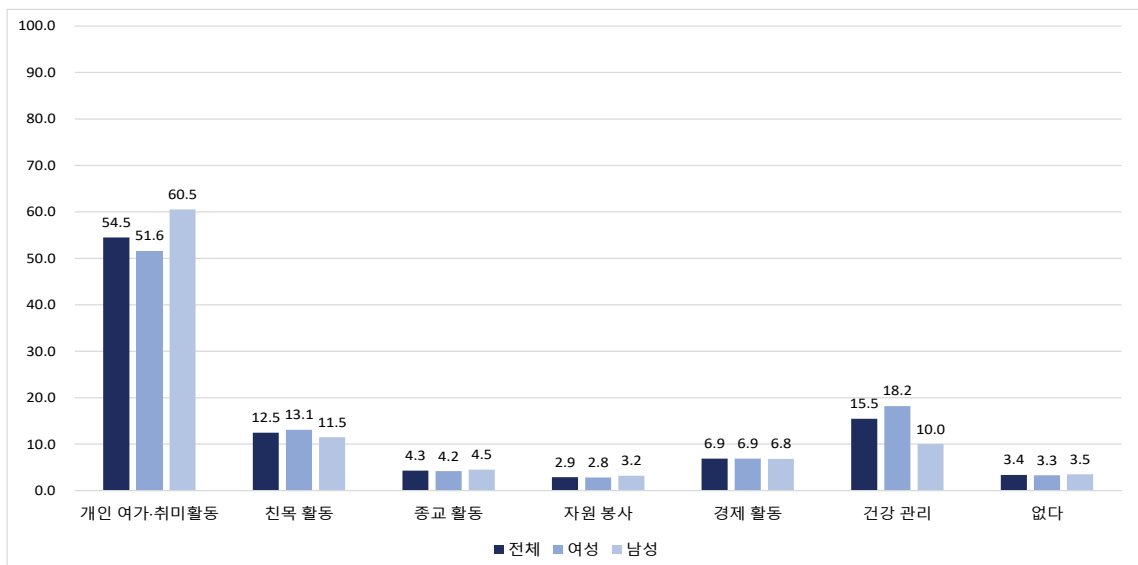


[그림 5] 조부모 성별 돌봄 중단 생각 이유

손자녀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개인 여가·취미 활동’(54.5%)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고, ‘건강관리’(15.5%), ‘친목활동’(12.5%)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순위는 남녀가 유사했으나, 비중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여

성보다 ‘개인 여가·취미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남성 60.5%, 여성 51.6%),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관리’를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여성 18.2%, 남성 10.0%).

(단위: %)



[그림 6] 성별 손자녀 돌봄을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

3. 조부모 돌봄의 구조적 기제

영유아 보육 및 초등돌봄 서비스,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제도 등 아동 돌봄정책의 지속적 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조부모들이 응답한 손자녀 돌봄의 이유는 조부모 돌봄의 구조적 기제를 보여준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데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이유 1순위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모의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서’이며 손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조부모 중 약 절반(49.2%)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두기가 안쓰러워서’(21.2%), ‘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

줄 관리가 필요해서’(11.7%) ‘어린이집에 오래 있으면 원장이나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8.3%) 등의 순이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와 같이 보육 서비스의 한계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낮았다. 보육 서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일차적으로는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일 중심 노동 시장 관행,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시설에 맡겨두기를 꺼려하는 정서적 요인을 내포한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 그리고 경쟁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가족 전략으로서 사교육 필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친 복수 응답 결과도 대체로 유사하지만, ‘아이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걸 싫어해서’의 비중이 15.6%로 ‘보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8.5%)보다 높았다.

<표 4> 취학 전 아동 시설 이용하면서 조부모 돌봄 이유

(단위: %)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부모의 노동시간	부모의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서	49.2	19.8	68.8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두기가 안쓰러워서	21.2	35.9	57.2
사교육 필요	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	11.7	19.9	31.7
제도적 요인	어린이집에 오래 있으면 원장이나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8.3	10.0	18.2
	보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6.0	2.5	8.5
기타	아이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걸 싫어해서	3.6	12.0	15.6

주: 사례수는 취학 전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646명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가 돌보는 가장 큰 이유(1순위 응답 기준)는 가족 중심 돌봄 가치관에 있다.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아이가 좀 더 크면 보내려고’(43.9%)나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7.4%) 등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을 내포하는 응답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해서’(20.6%), ‘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12.3%), ‘보육/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6.4%) 등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다. 1순위와 2순위 응

답을 합친 복수응답 결과, ‘가족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가 절반 가까이(46.3%)로 나타날 정도로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초점집단면접 결과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취학 전 아동 시설 미이용하면서 조부모 돌봄 이유

(단위: %)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	아이가 좀 더 크면 보내려고	43.9	19.9	63.5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7.4	38.8	46.3
양질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해서	20.6	18.4	39.0
	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12.3	5.1	17.3
	보육/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6.4	4.6	10.9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부담돼서	4.2	7.1	11.5
사교육 필요	영어 유치원 등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4.0	3.6	7.7
기타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1.2	2.6	3.9

주: 사례수는 취학 전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을 미이용하는 192명임

면접참여자들은 말 못하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손자녀를 남에게 맡기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차라리 자신이 직접 돌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저는 애들보다는 제가 더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한테 만약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남의 손에 맡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불안해서 제가 보면서 제가 직접 하는 게 제가 더 원했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아이를 두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도 드러난다. 면접참여자들은 부모의 늦은 퇴근시간으로 인해 아이가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것 보다 조부모가 집에서 돌보

는 것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더 낫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너무 오래 있어도 애한테도 정서적으로 좋지도 않고요. 애가 그런 걸 느낀대요. 너무 혼자 오래 있으면. 다른 친구는 다 가는 데 나만 덜렁 남아있으면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대요.

어린이집에서 애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은 나는 한정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애들하고 어울리고 누가 집으로 와서 애를 케어를 해주는 게 나는 낫다 이거예요.

초등학생의 경우 마을돌봄 또는 학교돌봄을 이용하는 데도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 퇴근시간 이후의 돌봄 공백 문제(‘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이 끝난 후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58.0%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사교육 필요(‘학원 등하원 등 아

4) 초점집단면접 사례에 대해서는 마경희·김소영·김은자·문희영(2025).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353-382를 참조할 것.

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가 18.8%였다. 공적 돌봄의 질적 수준(‘방과 후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11.2%)이나 가족 돌봄 중심 가치관(‘아이를 늦게까지 학교나 돌봄 기관에 맡겨두기가 안쓰러워서’, 11.5%)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복수응답은 ‘아이가 학교나 돌봄기관에 오랜 시간 있고 싶어하지 않아서’(21.8%)가 ‘방과 후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14.7%)보다 높았다.

<표 6> 초등학생 마을돌봄 또는 학교돌봄 이용하면서 조부모 돌봄 이유

(단위: %)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부모의 노동시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이 끝난 후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8.0	25.0	82.8
사교육 필요	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	18.8	28.2	46.7
양질의 공적 서비스	방과 후 돌봄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11.2	3.2	14.7
가족 중심 돌봄 가치관	아이를 늦게까지 학교나 돌봄기관에 맡겨두기가 안쓰러워서	11.5	22.4	34.0
기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이가 학교나 돌봄 기관에 오랜 시간 있고 싶어하지 않아서	0.5	21.2	21.8

주: 사례수는 취학 아동 중 마을돌봄 또는 학교돌봄을 이용하는 154명임

마을돌봄 또는 학교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 돌봄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필요 41.0%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21.1%+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 19.9%)이며, 다음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 30.4%(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마을돌봄 기관이 없어서 10.6%+방과 후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아서 8.7%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기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6.6%+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아이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4.5%)였다. 가족 중심 돌봄 가치관은 25.5%(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20.0%+아이가 방과 후에도 학교나 기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5.5%)로 취학 전 아동 돌봄에 비해 낮았다.

<표 7> 초등학생 마을돌봄 또는 학교돌봄 미이용하면서 조부모 돌봄 이유

(단위: %)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사교육 필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21.1	11.6	33.2
	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	19.9	14.5	35.0
공적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	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마을돌봄 기관이 없어서	10.6	5.8	17.0
	방과 후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아서	8.7	10.1	18.4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기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6.6	4.3	11.0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아이가 대상자가 아니어서	4.5	7.2	11.3
가족 중심 돌봄 가치관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20.0	23.2	43.7
	아이가 방과 후에도 학교나 기관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5.5	14.5	19.2
기타	아이가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3.1	8.7	11.2

주: 사례수는 취학 아동 중 마을돌봄 또는 학교돌봄을 미이용하는 71명임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시설에 오래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인식 보다는 과도한 일정과 학업 중심의 일상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현실적인 시간관리의 필요성이 조부모 돌봄의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다. 조부모들은 학교 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후 곧바로 학원에 가기 보다는 잠시라도 집에 들러서 쉬고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학년 때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아침에 8시 반에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학원 들고 하면 6시에 집에 와. 그럼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럼 차라리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학원을 가는 게 낫다. 1학년 때는 다녔어요. 근데 2학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안 하고.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딱 2개. 영어하고 논술 학원인가 그거 딱 2개만 보내더라고. 그래도 저녁에 6시에 와요.

정리해 보면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경직된 노동시장 관행이다. 직장에 대한 높은 헌신과 몰입을 요구하는 노동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며, 이는 부모의 개인적 선택을 넘어서는 제약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조건 하에서 자녀의 성공과 안정적인 직장·가족생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아이는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사적돌봄체계에 대한 선호, 그리고 공적 돌봄 체계를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높은 사교육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즉, 노

동시장 관행이 구조적 돌봄 공백을 만들어 내고, 부모로서 도리와 역할,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한 가족자원 동원, 가족에 의존해야 생존이 가능한 사회구조, 가족이 돌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신념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아동 돌봄 정책방향과 과제

가. 조부모 돌봄수당 재검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 돌봄수당은 여성의 노년기 돌봄 부담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성중립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노인의 '독박 돌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은 단순히 남는 시간을 투입하는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 등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는 활동이자 역량이며 성역할 분업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이는 주로 여성들이 수행해 온 역할이다. 이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남성 노인이 손자녀를 돌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돌봄 활동은 손자녀의 할머니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손자녀 돌봄 의향이 낮았고, 원치 않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돌봄을 맡게 되는 비율과 손자녀 돌봄을 중단하고 싶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성별화된 돌봄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

의 가치 인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 노인의 비자발적 돌봄을 고착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수당은 비자발적 돌봄에 도덕적·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여성 노인을 돌봄의 굴레에 가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자녀, 부모, 배우자 등 생애 전반에서 타인을 돌보며 헌신해 온 여성 노인에게 노년기마저 돌봄 역할을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삶의 국면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둘째, 손자녀 돌봄 수당은 노년기에 수행되는 돌봄의 체력적 부담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실증된 바 있고(양혜경, 2016; 이자경·장숙량, 2016; 최미향·오혜은, 2022), 이 연구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 노년기의 돌봄 노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이며 한번 악화된 건강은 회복이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손자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손쉬운 해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악화된 노인의 건강은 개인적 차원의 건강 악화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노인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불가피한 조부모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금 보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장려할 것이 아니라 돌봄 부담을 완화하거나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등 돌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셋째,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는 거리가 멀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이란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돌봄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 차원의 복리는 물론 사회 전체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수

적인 노동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급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돌봄 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드러내자는 것이지 가족을 돌보는 구성원에게 현금 보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은 '가족이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평가절하된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거리가 멀며, 가족 돌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상 가능한 노동으로 평가절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넷째, 조부모 돌봄수당은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다. 조부모 돌봄 부담의 구조적 기제가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노동 관행인데 정책 개입은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그 결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려 한다. 부모의 노동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고 정시퇴근을 가능하게 하며,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접근이야말로 돌봄 공백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의존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가구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훨씬 높은 정책 효과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 책임을 가족에 재전가함으로써 공적 돌봄 시스템 개선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돌봄을 제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공적 시스템이 담당해야 할 돌봄 기능을 가족 내부로 되돌리는 재가족화(re-familization)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 서비스 정책은 가족 특히 가족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향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강화하기보다는 가족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돌봄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선회함으로써 공적 돌봄 체계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의 책임을 방기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가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 확충이나 노동시간 구조 개선에 투자하기보다 가족 내부의 돌봄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돌봄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나. 아버지의 돌봄 책임 강화와 일하는 부모의 일상적 돌봄 시간 보장

조부모 돌봄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구 내 자녀 돌봄에서 아버지의 역할 공백은 어머니 혼자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조부모의 도움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부모가 동등하게 자녀 돌봄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조부모 돌봄과 아버지 돌봄 책임 회피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 조부모 돌봄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성별화된 돌봄 분담 구조와 이를 유지시키는 노동시장 및 노동시간 체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돌봄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의 일상적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더라도 여성보다 이용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 종료 이후 자녀 돌봄의 주된 책임은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육아휴직 기간 중의 돌봄은 특정 시기에 제한적인 반면, 자녀의 돌봄 욕구는 일정한 연령대가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육아휴직 이용 확대는 자녀 돌봄의 성평등한 분담을 촉진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과 그 결과 발생하는 조부모 의존적 돌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의 보상체계와 시간구조가 장시간 근로와 시간 가용성에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탐욕스러운 일(greedy work)’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Goldin, 2021), 육아휴직 제도 확대만으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남성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장시간 노동과 예측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늦은 퇴근을 전제로 하는 노동환경에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간 부족은 결국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 내 비공식 돌봄 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진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일’ 중심의 노동시간 구조를 아동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노동자가 돌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언제든 노동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형성된 노동시간 체계를, 돌봄 책임을 가진 노동자의 삶을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 자녀 돌봄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등·하원, 식사, 학습지원, 정서적 돌봄 등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가의 확대가 아니라 ‘매일 돌볼 수 있는 시간’의 보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넘어 돌봄 중심의 노동시간 재편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제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총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일하는 부모의 일상적 ‘돌볼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관점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주4일 근무와 특정 요일 4시간 근무의 결합(주 4.5일제), 격주 4일제(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 4일 근무), 주 5일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자율단축제) 등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⁵⁾. 이러한 제도 설계는 장시간 휴식이나 개인적 시간 활용에는 효과적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자녀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관돌봄 종료 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 4.5일제가 ‘돌봄 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형성된 장시간 노동체계를 ‘돌봄 책임을 가진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때, 아버지의 돌봄 참여 역시 육아휴직이라는 제한된 기간의 일시적 활동을 넘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다. 조부모 돌봄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은 생애주기의 특정 시점에 집중된 돌봄 시간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일 반복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돌볼 시간’에 대한 권리를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 공적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유치원 보육

마지막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특히 방과후 시간대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유보통합(幼保統合)’은 이러한 질적 수준 제고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시간에 대해 학원이나 조부모 자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돌봄기관 자체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무상보육’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적정보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질은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며, 어떤 국가에서도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질 높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방과후 시간부터 우선적으로 ‘무상보육’의 패러다임을 넘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적정수준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은지 외, 2019).

한편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 발생으로 제2의 고용단절을 가져오

5) 경기도뉴스포털(2025.6.16.). 일과 생활의 균형, 경기도 4.5일제 사업으로 시작하세요! 도, 6월9일부터 7월8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대상 기업 추가 모집.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ewsType=N&number=202506161310553101C052&s_code=C109&utm_source=chatgpt.com (최종검색일: 2025.12.10.)

는 시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에서 다양한 돌봄이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돌봄에 대한 높은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이며 양적 확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상으로는 무상보육의 질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된다. 학원 시장과 경쟁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적절한 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를 만들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원이 학교돌봄에 비해 질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단기 성과가 아닌 내실 있는 수업은 학원이 아닌 학교돌봄 세팅에서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방과후 학교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당 모델을 시험한 바 있고 사립학교 모델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교육부 보도자료(2024.2.5)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24.6.27)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김은지·마경희·최인희·김이선·최진희·성경·윤자영(2022).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정가원·배호중·김수진·성경·이상건·최영·안현미(2019).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마경희·김소영·김은지·문희영(2025).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혜경(2016).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1-23.
 이자경·장숙량(2016). 손자녀를 돌보는 한국 조모들의 돌봄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 한국노년학 36(3): 693-709.
 최미향·오혜은(2022).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분법의 활용. 여성연구 115(4): 277-305.
 Goldin, C.(2021). 커리어 그리고 가정: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김승진 옮김. 생각의힘. Goldin, C.(2021).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